

나프타 가격 어디까지 올라갈까?

아시아 수요증가 및 해상운임 급등 ... 석유화학 가격 반영 불가피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장기화되고 있다.

원유가격이 수요기인 겨울을 지나서도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극동지역의 나프타 Spot가격은 톤당 350달러 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국산 나프타 가격은 1/4분기 kt당 2만8000엔 내외로 정착될 것이 확실해 2003년 4/4분기에 비해 4000엔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더욱이 대부분 조달이 끝나는 2/4분기 가격도 1/4분기를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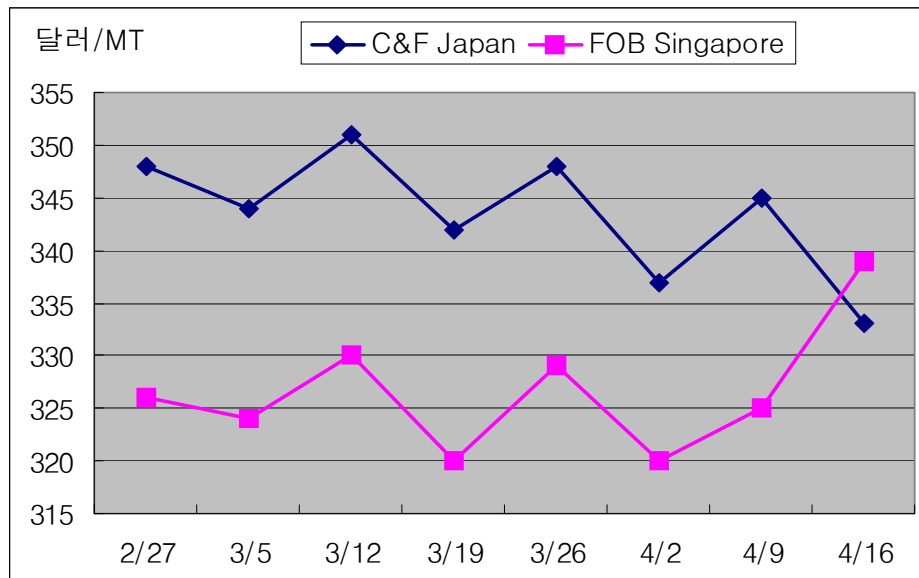
따라서 예상을 뛰어넘는 원유가격을 배경으로 석유화학 메이커들이 석유화학제품 가격의 2차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 원유가격은 수요기인 겨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래 없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WTI는 3월 들어 배럴당 37-38달러로 1990년의 걸프전 때나 2003년 3월의 미국-이라크 전쟁에 필적하는 유사시 가격 수준에 도달해 있다.

고유가의 배경에는 미국의 자동차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재고량 저하로 인한 가격급등, OPEC에 의한 4월 이후 원유감산 움직임, 중동이나 베네수엘라 등의 긴박한 정세 등이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석유제품 중 하나인 나프타도 원유가격 상승과 함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프리미엄의 상승, 운송수요 증가에 따른 해상운임 급등 등 가격상승 요인이 산재해 있다.

Naphtha 가격추이



최근 들어 원유 대비 가격비율(Parity)이 한때에 비해 안정돼 있으나 오히려 가격상승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화학 메이커들은 1/4분기의 나프타 가격상승으로 일제히 코스트를 전가시키기 위한 석유화학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 Polyolefin 등의 가격인상이 벌써 가공기업 등 최종 소비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다만, 원유가격의 상승은 당초 예상을 뒤엎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가격인상으로도 코스트 전가가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4분기 나프타 가격은 이미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계약조달이 6월 끝나 남은 30%의 Spot 조달도 5월 전 반까지는 완료될 전망이다.

2/4분기 나프타 가격은 톤당 2만8000-2만9000엔으로 최종적으로 1/4분기와 비슷하거나 더 높을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석유화학기업들은 추가적인 가격전가나 1/4분기 가격인상 보류부분을 다시 적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석유화학제품 가격인상이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 침투하려면 적어도 몇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채산성을 확보 하려는 화학기업들이 최종 소비자가격 협상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2차 인상방침을 내놓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4/04/26>